

‘기독교생명운동네트워크’ 창립이야기

강 상 빈(회장, 집사, 서울 배광교회)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인간들의 자만과 이기심, 게으름과 나태함, 부정과 부패로 인해 서서히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는 잘사는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비만을, 못사는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굶주림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먹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끊임없는 기도와 함께 성경에 입각한 생명운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16-17, 6:19-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청결하지 못한 음식물로 성전을 훼손함은 곧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학첨가물과 환경호르몬제로

범벅이 된 음식이 아닌 친환경 먹거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순결하게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친환경 먹거리의 생산은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만족할 만한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농촌교회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따라 재배한 생명력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면에서도, 농촌교회가 생산한 청정한 친환경농산물을 도시교회가 직접 구매하여 판로를 보장해 준다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촌교회 자립에 도움이 되어 농촌복음화사역을 보다 잘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도시교회 성도들은 적당한 가격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공급받을 수 있음으로서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며, 이웃 간에 나눔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업으로 흙과 물이 살아나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이 회복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실 것이며 후손들은 좋은 세상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기독교생명운동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어 왔습니다.

2. 기독교생명운동네트워크 창립과정

기독교생명운동네트워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생협 및 기독교정신으로 생명농업과 친환경농수축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유관단체들이 협력(合力)하여 1년 간 기도로 준비한 끝에, 2004년 6월 29일 창립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농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농·도공동체, 사랑 공동체,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 보존, 계승시길 공동 노력의 장(場)으로 기독교생명운동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모임은 2003년 6월 19일 감리교 농도생협에서 있었습니다. 생협물류의 효율적인 협조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독교정신으로 생협운동을 하거나 물류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결성을 위한 모임을 갖고(예장생협, 한국농선회생협, 농도생협, 아름다운생협, 한누리생협, 한국자연농업협회 유통본부) 직원 및 조합원 공동 교육실시, 공동브랜드개발,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단위 생협 결성의 적극 추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키로 하여 2003년 8월 22일-23일 한국4H회관본부에서 28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생협네트워크의 발전과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한국교회의 친환경농산물소비운동 활성화 방안과 농촌교회생산지 연대 방안, 기독교생협 물류의 협력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 기독교생협의 시스템과 운영방안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분임토의도 하였습니다.



기독교생명운동네트워크 창립총회

그 후 부활절 유정란 공급 캠페인, 직거래장터, 우렁이 입식 개척 등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준비모임과 카페 미팅을 통하여 정관(안), 설립취지문(안), 창립총회준비를 하여 2004년 6월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기독교생명운동네트워크 설립취지문

오늘의 시대는 생명이 경시되고 물질중심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가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생명의 존엄성이 무너지며 도덕성이 상실되고 인간(우리)은 수많은 혼돈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창조적 질서를 추구하는 생태계의 회복과 인간성(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생태적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근래에 이르러 사회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명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성경에 입각한 생명운동의 본질적 해석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생명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필연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협력(네트워크)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리하여 생명중심의 가치관을 통해서 농·도공동체와 교회의 본질인 신앙공동체를 지향하여 참된 하나님나라를 건설하십시오. 따라서 생태계의 복원을 통한, 인간성 상실의 회복과 신앙공동체의 회복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우리는 생명농업, 직거래, 농도공동체를 위해서 다음의 실천과제를 갖습니다.

〈실천과제〉

- 1) 물질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삶을 지향한다.
(우리의 생활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고쳐나간다.)
- 2) 생명의 근본인 땅을 살리기 위해서 생태적 삶을 지향한다.

(생태적 삶이 가능하도록 생명농업에 종사하며 직거래운동에 동참한다.)

3)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농도공동체를 지향한다.

(농어촌교회와 생명농업인을 적극 후원한다.)

4) 인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힘쓴다.

(각종 성인병 환자들을 위해 치유사역에 힘쓴다.)

4. 사업계획 및 조직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은 회원 확대 기반 조성, 공동교육실시, 효율적인 공동물류 추진 등이며, 사업의 기본방침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신규회원 확대, 지도자교육, 개발 홍보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농촌교회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육성, 도시교회 친환경농산물판매 코너 신설 지원, 물류효율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독자생활재 개발 및 공유, 정체성확립 및 신학적 확립 토론회, 경영합리화 교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활성화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고할 임원(운영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회장: 강상빈 집사(한누리생협 이사장)

총무: 김석주 집사(자연농업협회유통본부장)

감사: 전석호 목사(여수한살림 이사장), 임선복 집사(우리밀반포대표)

운영위원: 고경숙(안양YMCA생협), 김기중 목사(한국농선회생협 상무이사), 김영애(예장생협 이사), 남부원(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박순웅 목사(감리교 농도생협 이사), 박은실(대한YWCA연합회 기획부장), 정기선 집사(아름다운생협 상무이사), 차홍도 목사(농도생협 이사장), 천민규(새누리생협 상무이사), 한경호 목사(남한강삼도생협 이사장)

5. 앞으로 나아갈 방향

설립취지문에서 밝혔듯이 오늘날 생명이 경시되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가 공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성경에 입각한 생명운동을 본질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생명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되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생태계 및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농·도공동체, 신앙공동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운동의 성패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되살리는 의미 외에도 교단마다 애쓰고 있는 환경운동과 농어촌 살리기 운동에도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독교생명운동네트워크에 가담한 단체는 예장생협, 농도생협, 여수한살림, 한누리생협, 한국농사회생협, 남한강삼도생협, 아름다운생협, 새누리생협, 한울타리생협, 한국자연농업협회, 한국생명농업협회, 우리밀유기농, 도농유기농, 자연농업이장집, 한국YMCA연맹, 대한YWCA연합회, 안양YMCA생협, 21세기농촌선교회, 자연과 사람들, 농촌살리기, 밭아현미, 화정유기농, 까치밥, 태자원, 생협전국연합회, 가나안농군학교, 흙살리기참여연대, 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로템아트, 안의교회, 배광교회, 가나안생태, 수신성결교회, 두레교회, 어유교회, 대산교회, 행복한밥상 등이다.

기독교생명운동네트워크(Christian Life Movement Network, CLMN)는 일단 생명농업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생명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유통시키는 일에 주력함으로써 생명의 근본인 땅을 살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아울러 물질보다 생명이 우선시 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즉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의 생활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고쳐나가는 운동을 펼쳐 나아가려고 한

다.

또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연대를 통해 농·도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교회 중심으로 생명농업인들이 모이게 하고 이를 도시교회와 연결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농촌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섭리에 따라 단순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덜 벌고 덜 쓰기 운동, 자유하는 운동을 실천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각 교회에 생협 유기농매장이 설립되어 이에 필요한 연합물류를 기독교계가 협력하여 실천함으로 창조질서회복을 잘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생명운동네트워크는 평신도와 교역자가 함께 먼저 신학적 토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분명한 신앙고백의 바탕 속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인 전망을 해보며 협력하여 합리적인 실천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항상 기도하면서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 해 나아가갈 것이다. 농촌복음화를 통해 농촌을 살리고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소비운동을 통하여 자연과 환경이 살며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農